

여수시, ‘해외 MICE유치’ 마케팅 본격 시동건다

일본 지역 K-관광 로드쇼 참가
도쿄 등 3곳 20개 업체와 상담
현지 여행사 업무협약 등 성과
“다양한 국가 상대 마케팅 지속”

여수시가 일본 주요 업체와 MICE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MICE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 열린 ‘2025 일본 지역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일본 관광·MICE 업계를 대상으로 한



여수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2025 일본 지역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일본 관광·MICE 업계를 대상으로 한국 관광설명회와 상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수시 제공

국 관광설명회와 상담회를 가졌다.

시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후쿠오카와

히로시마, 도쿄 등 3개 지역에 여수시 관광 MICE 크루즈 인프라를 알렸으며, 약

20여개 업체들과 B2B(Business-to-Business)기업과 기업 사이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상담을 가졌다.

특히 행사를 통해 일본의 주요 여행사인 코니커뮤니케이션즈(KONI COMMUNICATIONS), 제이앤케이투어(JNK TOUR) 등 2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협약에는 △일본 마이스(MICE) 바이어 대상 여수 마이스(MICE) 인센티브 지원 내용 및 기반 시설 수시 홍보 △여수 마이스(MICE) 행사 유치 확대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 초청 팸투어 등 추진 △양

도시 연계 마이스(MICE) 프로그램 지원 및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코니커뮤니케이션즈와는 오는 10월 일본 단체 관광객 여수방문을 확정 지었으며, 일본 각 지역의 한국관광공사 지사장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약속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로드쇼 참가와 업무협약체결이 해외 MICE행사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발맞춰 다양한 국가를 상대로 전략적 MICE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4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여수시가 4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6일 여수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정책의 운영성과, 식중독 예방 활동, 식품안전 인식도 제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여수시는 탁월한 위생 관리 능력과 민관 협업 시스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정기적 위생 점검은 물론, 계절별 식

중독 예방 캠페인, 식품안전 홍보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도시 특성상 철저한 식품 안전관리를 통해 ‘안심 먹거리 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현장 위생업소의 노력이 만든 성과”라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안전한 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청 요트팀,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우승

혼성 2인승 470급 김창주·이경진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이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청 요트팀의 김창주·이경진 선수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북 부안군 격포항 일원에서 열린 ‘제22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국가대표 선발전)’ 470급(혼성 2인승) 종목에 출전,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470급 김창주·이경진 선수는 지난해 여

수시청 요트팀에 입단해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강풍과 추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국내 최정상급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진홍철 요트팀 감독은 “지난 동계기간 동안 체계적인 훈련으로 경기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더 좋은 성적을 거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청 요트팀은 전년도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요트종목 종합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있을 각종 전국대회 및 제106회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최대 10만원

여수시가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및 자격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 또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올해 응시한 토익 등 어학 시험 19종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시험 545종이며, 올해부터는 한국사 시험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에 응시한 어학·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총 380회로 1회 응시료 5

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 희망자는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청년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청년지원센터(061-664-2113·5)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구직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어린이 영양교육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오이를 썰고 있다. 여수시 제공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교육 진행

여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회원기관 122개소, 244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진행한다 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실시한 편식 식재료 조사 결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오이가 주재료.

교육은 오이 수확과 오이김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진행되며, 특히 요리 실습 후 만든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

서 부모와 함께 먹어봄으로써 가정에서도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GS칼텍스 ‘대정비작업’ 완료… 지역 경제 ‘단비’

공사비 총 3083억원 지역서 사용
지게차 접근금지 AI 기술 등 활용

GS칼텍스는 지역사회와 함께한 2025년 상반기 대정비작업(Turn Around·TA)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GS칼텍스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6개 팀 13개 공정에서 진행한 올해 상반기 TA에 총 3083억을 투입했다. 1일 평균 2270명, 연인원 9만1000명이 40여일간의 대장정에 함께 했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투입 비용 중 70~80%는 지역업체 활용 및 지역 물품 구입, 지역민 채용 등에 사용돼 여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GS칼텍스는 대정비작업 시작에 앞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75개 협력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과 함께 ‘GS칼텍스 여수공장 무사고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주기적으로 작업현장 전반의 안전 보건사항을 점검하는 등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대정비기간 중에도 유관기관과 안전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임했다.

GS칼텍스는 작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난해에 이어 대거 투입했다.

특히 작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이번 TA에 적용한 대표적인 스마트 안전 기술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지게차 접근금지 시스템 △AI CCTV, 스마트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추락보호 안전조끼 등이 있다.

지게차 접근금지 시스템은 주변에 있는 작업자가 지게차에 접근하면 LED 점멸 및 알람으로 즉각 경고하고 인체인식 경고시스템과 연동해 작업자가 지게차 이동

공간 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경계선이 그려진다.

또 AI CCTV를 통해 안전 수칙 미준수 시 경고음이 울리고, 모바일 CCTV를 활용해 작업장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는 ‘스마트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유해 가스 잔존 유무를 즉각 파악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고소 작업자들은 센서를 통해 추락이 감지하면 에어백이 자동으로 작동해 작업자를 보호해 주는 ‘추락보호 안전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김성민 GS칼텍스 CSEO/각자대표(최고 안전환경 책임자)는 “위험할 땐 멈춤, 동료와 함께, 출근하는 모습 그대로 퇴근합시다”라는 안전 구호 아래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했다”면서 “대정비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